

KLI 패널브리프

발행인 이인재 | 편집인 이규용 | 발행일 2015년 6월 4일(목) | 발행처 한국노동연구원 | 제4호

노동조합 위원장의 리더십 현황

김정우*

- 유노조 사업체 중 90% 이상에서 직선제를 통해 노조위원장을 선출하고 있으며, 투표율은 절반 이상 노동조합이 90%를 상회하고 있어, 비교적 높은 참여 속에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리더십이 구축되고 있음.
- 노조위원장의 임기는 평균 2~3년인데,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경우 80% 이상이 3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하는데 비해,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임기가 2년인 경우가 50~60%에 달함.
- 찬반투표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는 경우는 약 50%에 달하며, 위원장직을 연임하는 비율도 추세적으로 상승하여, 최근의 경우 50%를 상회하고 있음.
- 노조위원장의 95% 이상이 남성이며, 30~40대의 비중은 약 60~70%, 고졸 학력 소지자의 비중은 절반에 육박함.
- 사업체 전체노동력의 직종별 분포와 노조위원장의 직종별 분포는 거의 완벽한 매칭을 이루고 있으나 여성의 비중은 매우 과소 대표되고 있음.

1

분석 목적 및 방법

□ 분석목적

- 노동조합의 역할 및 사회·경제적 기능에 대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분석과 주장이 있어왔지만, 노조 내부의 리더십이 어떻게 구축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통계자료는 부재하며, 이에 대한 논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.
- 노동조합 리더십과 노조대표권의 문제는 노동운동 및 노사관계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므로 관련 통계 분석은 노동운동의 행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.
- 이 글은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노동조합 위원장이 어떻게 선출되고, 또 이들의 인적속성은 어떠한지, 전체근로자 구성에 입각한 노조대표권이 적절히 보장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□ 분석방법

- 사업체패널 1~4년차 자료 중,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유노조사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항목의 응답값이 있는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연도별 표본 가중치를 부여하였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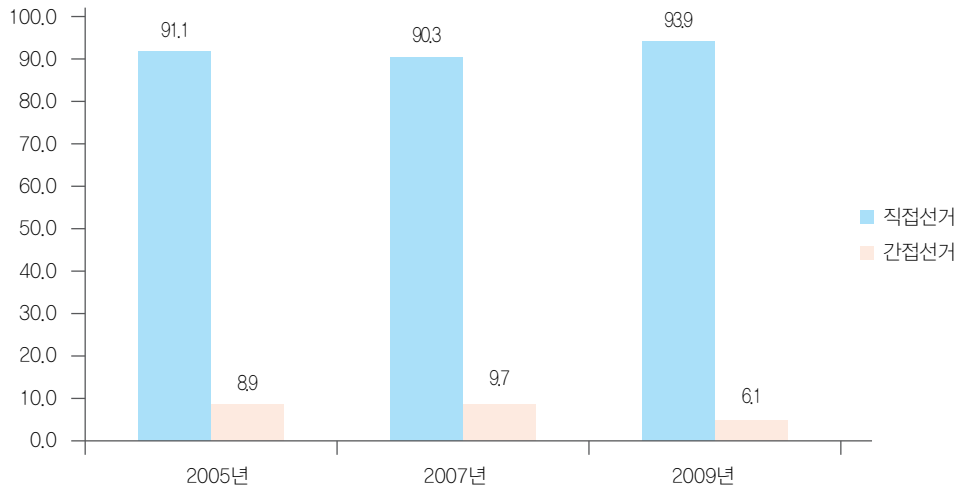
*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 사업체패널팀 / Tel: 044-287-6670

2 노동조합 리더십

□ 노조위원장의 선출방식 및 임기

[그림 1] 연도별 노조위원장 선출방식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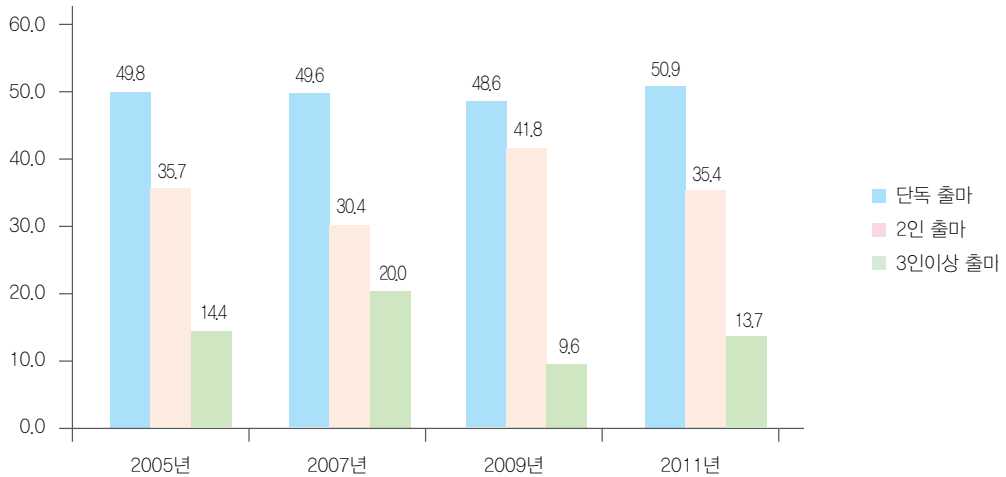
자료 : 사업체패널 2005, 2007, 2009.

○ 노조위원장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 선출되는지 살펴본 결과, 조합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비율이 90%이상으로 나타남.

- 상급단체별로 살펴보면, 한국노총소속 노조의 경우 직선거 비율은 89.4%(2005년), 89.6%(2007년), 93.0%(2009년)로 나타났고, 민주노총소속 노조는 94.9%(2005년), 97.8%(2007년), 93.4%(2009년)로 나타나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서 직선거 비율이 조금 더 많음.
- 사업체규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.

[그림 2] 연도별 노조위원장 출마자 분포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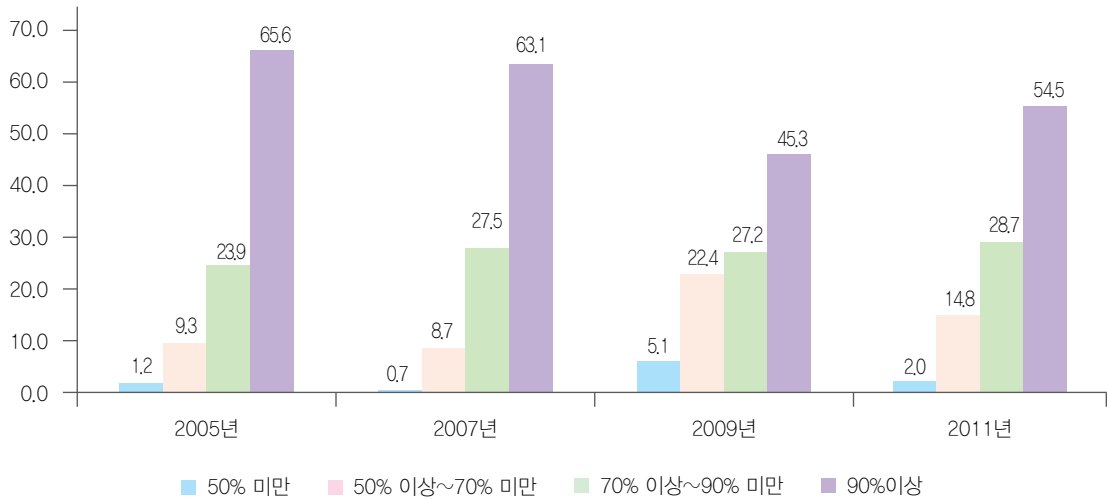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사업체패널 2005, 2007, 2009, 2011.

- 노동조합 위원장에 출마하는 후보자수를 보면 단독출마 비율이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으며 2인 출마는 35~40%임.
 - 3인 이상의 후보가 출마하는 경우도 적게는 전체의 9.6%(2009년)에서 많게는 20.0%(2007년)에 달하고 있어 일부 사업체에서는 노조 권력을 향한 경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.
 - 상급단체나 사업체규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.

[그림 3] 연도별 노조위원장 투표율 분포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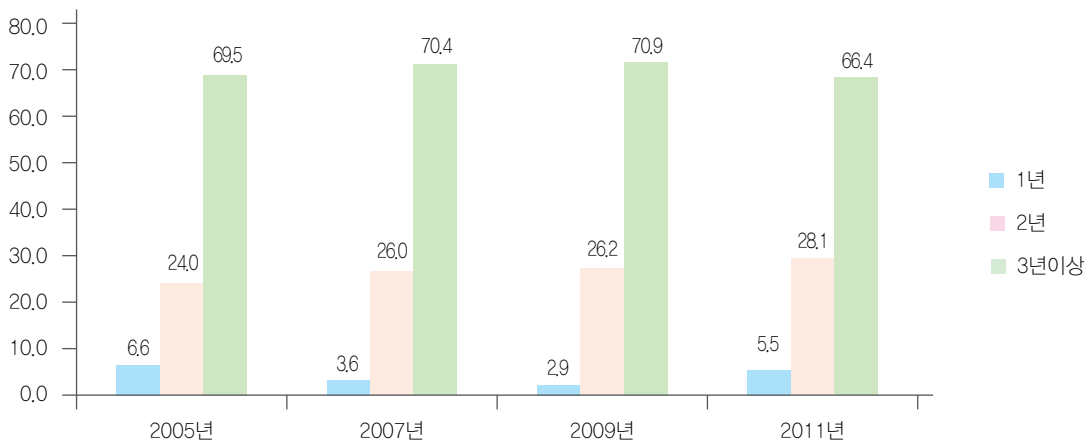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사업체패널 2005, 2007, 2009, 2011.

- 노조위원장 선거 투표율이 90% 이상인 노조는 2011년 54.5%로 2009년에 비해 9.2%p 많았으나 2005년에 비하면 10%p 낮았음
 - 2011년 기준으로 투표율이 70%~90%로 나타난 노조는 28.7%이며, 16.8%는 70%미만의 투표율을 보임
 -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체로 사업체규모가 커질수록 위원장 선거의 투표율이 낮으며 1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의 위원장 선거 투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[그림 4] 연도별 노조위원장 임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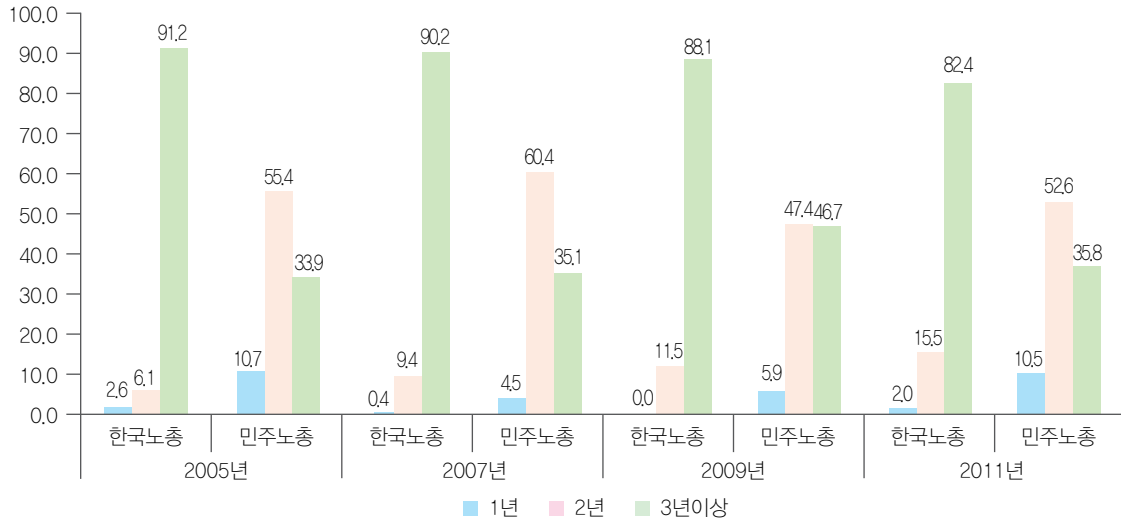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자료 : 사업체패널 2005, 2007, 2009, 2011.

[그림 5] 상급단체별, 연도별 노조위원장 임기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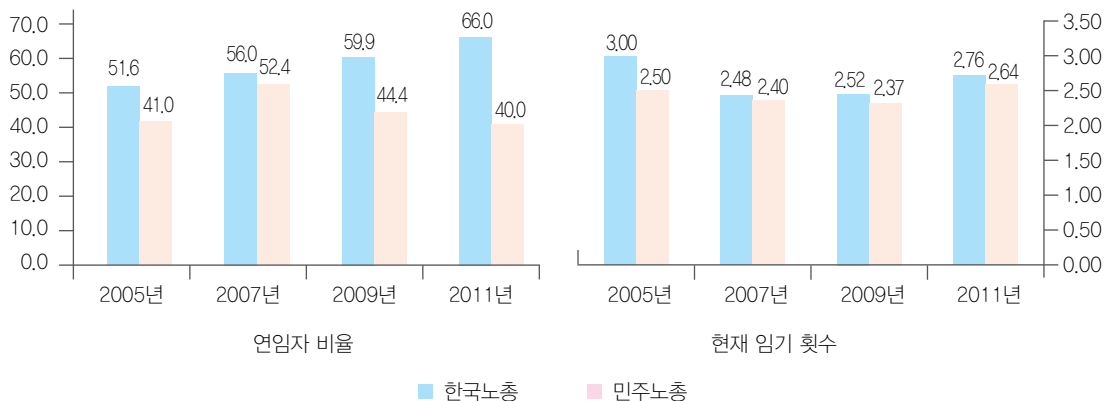
자료 : 사업체패널 2005, 2007, 2009, 2011.

○ 노조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 66.4%이고 2년은 28.1%이며 1년인 노조도 5.5%임(2011년 기준).

- 대체로 사업체규모가 클수록 노조위원장 임기가 짧은 것으로 나타남.
- 상급단체별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데, 한국노총소속 노조의 경우 위원장 임기가 3년 이상인 경우가 80%를 상회하는데 비해 민주노총소속 노조의 경우 2년의 임기를 부여하는 경우가 50~60%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음.
- 노조위원장의 임기가 짧은 것은 집행부의 교체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노조권력의 관료화를 막고 평조합원들의 민주적 통제가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긍정적 측면과 장기적인 안정적 리더십 구축이 곤란하여 지도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내포함.

[그림 6] 상급단체별, 연도별 연임노조위원장 비율 및 현재 임기횟수

(단위: %)



자료 : 사업체패널 2005, 2007, 2009, 201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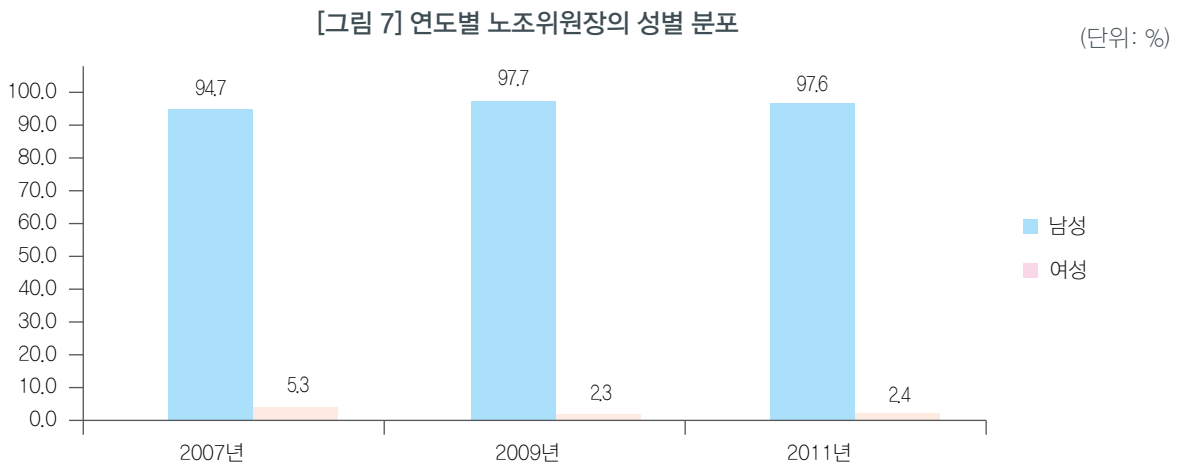
○ 노조위원장을 연임하고 있는 비율은 2005년 45.4%에서 2011년 56.7%로 증가하고 있음.

-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의 경우 연임자의 비율은 40.0%(2011년)~52.4%(2007년)로 한국노총의 연임자 비율인 51.6%(2005년)~66.0%(2011년)에 비해 다소 적음.

○ 현위원장의 평균 임기횟수를 살펴보면 한국노총의 경우 적게는 2.48회(2007년)에서 많게는 3.00회(2005년)인 반면 민주노총은 적게는 2.37회(2009년)에서 많게는 2.64회(2011년)로 다소 짧게 나타남.

□ 위원장의 인적 특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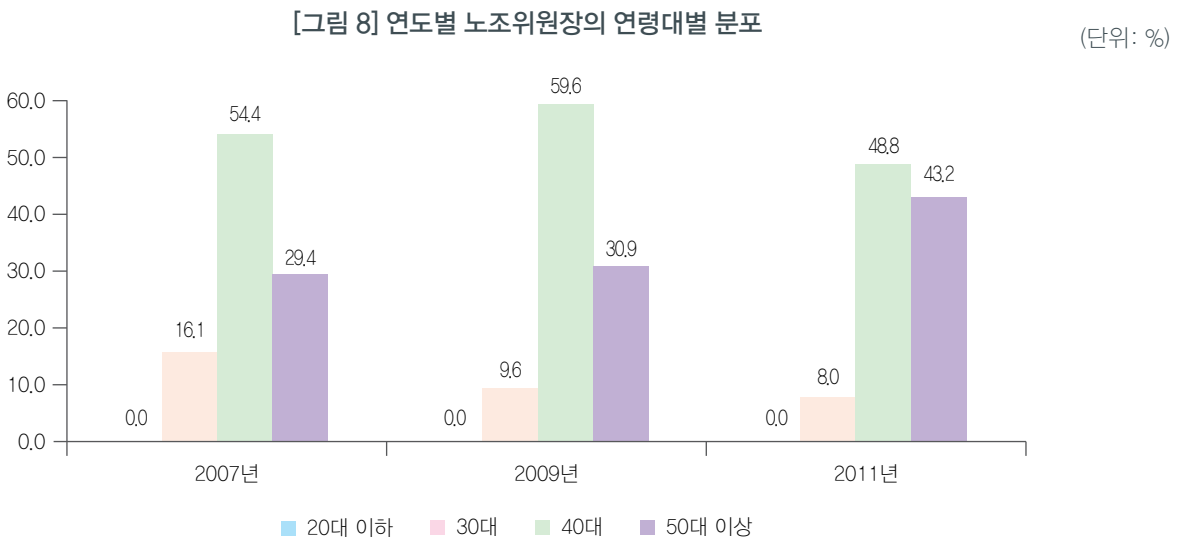
○ 노조위원장의 성별 분포를 보면, 대부분 남성으로 나타남(2011년 기준 남성이 97.6%).



자료 : 사업체패널 2005, 2007, 2009, 2011.

○ 노조위원장의 연령분포를 보면 40대가 가장 많으나 최근 들어 50대 비중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.

- 40대는 2009년 59.6%에서 2011년에는 48.8%로 하락하였으며 50대 이상은 2009년 30.9%에서 2011년 43.2%로 증가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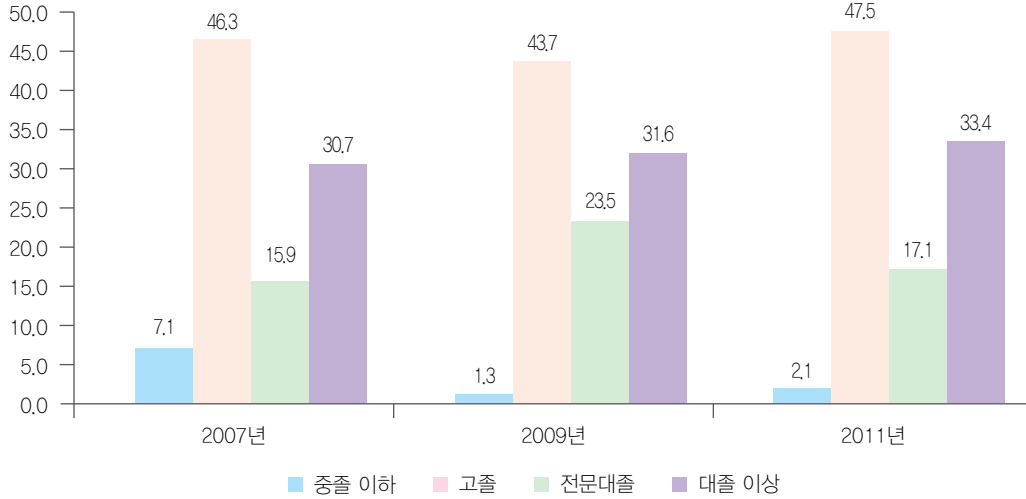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사업체패널 2005, 2007, 2009, 2011.

○ 노조위원장의 학력별 비율은 고졸이 43.7%~47.5% 정도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, 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의 비율도 30.7%~33.4%에 이르고 있음.

[그림 9] 연도별 노조위원장의 학력별 분포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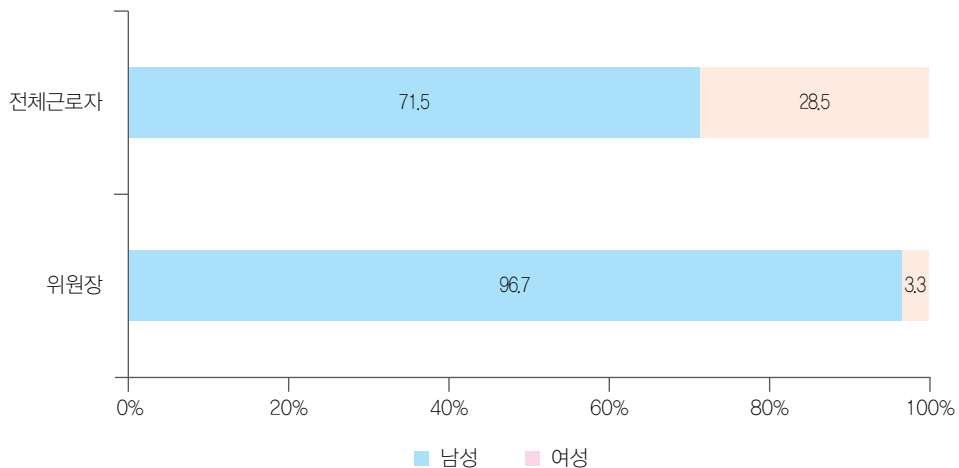
자료 : 사업체패널 2005, 2007, 2009, 2011.

□ 노조위원장의 성별, 직종별 대표권

- 노조위원장의 성별, 직종별 분포를 전체근로자의 성별, 직종별 분포와 비교해보면, 현재의 사업체 내부 노동력 구성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해볼 수 있음.
 - 2007년~2011년 기간 동안 사업체의 전체근로자(정규직+직접고용비정규직)의 성별 비율은 남성이 71.5%, 여성이 28.5%인 반면, 위원장의 성별 구성은 남성이 96.7%로 압도적으로 높음
 - 전체근로자의 직종별 분포와 노조위원장의 직종별 분포는 대단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대표적인 직종에서 노조위원장이 선출되고 있음을 보여줌.
- 이러한 성별 분포의 차이는 노조 구성원 내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 노조의 의사결정이 각각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거나 혹은 편향될 수도 있음을 암시함.

[그림 10] 전체근로자와 노조위원장의 성별 분포 비교(2007~2011 평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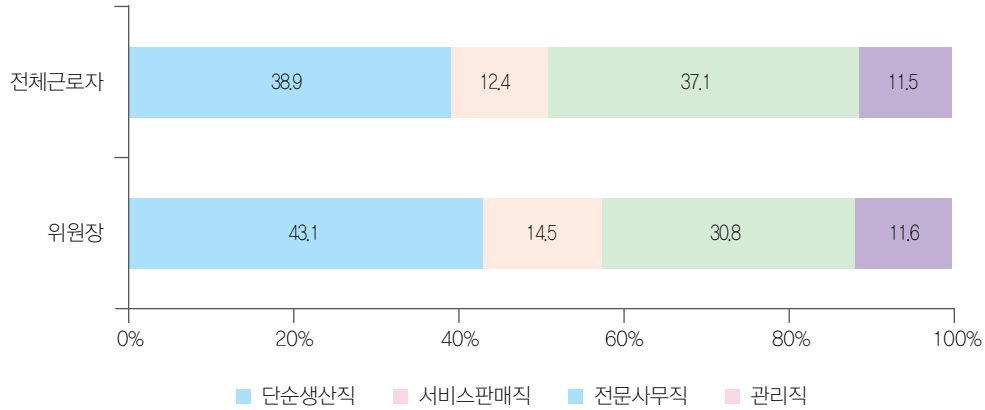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자료 : 사업체패널 2005, 2007, 2009, 2011.

[그림 11] 전체근로자와 노조위원장의 직종별 분포 비교(2007~2011 평균)

(단위: %)



자료 : 사업체패널 2005, 2007, 2009, 2011.

3

요약 및 시사점

- 이 글은 사업체패널 2005, 2007, 2009, 2011년도 자료 중 유노조사업체를 대상으로 노동조합 위원장의 리더십과 노조대표권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주요 분석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.
 - 90% 이상의 노동조합에서 직선제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고 있으며 투표율 또한 절반 이상의 노조들에서 90%를 상회하고 있어 비교적 높은 관심 하에 직접민주주의의 방식으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있음.
 - 노조위원장의 임기는 대략 2~3년 정도인데 한국노총소속 노조는 2011년 기준 임기가 3년인 경우가 82.6%인데 비해, 민주노총 소속노조는 2011년 기준 임기 2년인 경우가 52.6%이고 3년인 경우는 36.8%임
 - 노조위원장 선거가 찬반투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략 50%에 달하고, 노조위원장을 연임하고 있는 비율도 약 절반 내외인데, 그 비율이 해마다 점점 높아지고 있음.
 - 노조위원장의 인적특성을 보면, 95% 이상 절대다수는 남성이며, 30~40대의 비중이 50%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, 학력수준은 고졸학력이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으며, 그 다음으로 대졸, 전문대졸 순임.
 - 사업체의 전체노동력의 인적, 직업적 속성의 구조와 노조위원장의 인적, 직업적 속성의 구조를 비교해보면 직종별로는 저의 완벽한 매칭을 보이고 있지만, 상대적으로 노조위원장 중 여의 비중이 매우 적어 여성의 대표권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.